

타만반도(Taman Peninsula) 후기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키아쉬코 알렉세이*

국문요약

타만반도(타만)은 아조프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하고, 케르치해협에 의해 분리된 크림반도쪽으로 뻗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타만은 항상 교역로의 교차점, 고대문명과 문화의 교차점에 있었다. 이곳에는 다양한 시대의 고고유적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초기 구석기시대로 편년된다. 그러나 타만의 대규모 장기 거주는 청동기시대부터이다.

대규모 철도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2015~2016년도 고고발굴 전까지는 타만의 많은 과거 유적에 관해서는 일차원적이고, 지표조사에 의한 것뿐이었다. 이 시기에 행해진 발굴조사는 실질적으로 타만반도의 청동기시대를 열었다.

본고에서는 총 면적 약 40,000m²에 이르는 리소비츠크 후기청동기시대 취락의 전면조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유적에서는 초석이 남겨진 주거건축물의 2열이 동서로 뻗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건축물 내부는 주거용 구역과 저장공간이 있는 생활용 구역으로 나뉜다. 저장용 대형토기, 다양한 형태의 식기용 토기, 조각장식품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사바티노프 문화 전통에 부합하는데, 이 문화에 속하는 대부분의 유적은 흑해 북안지역과 크림반도에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형태의 토제품, 골제품, 청동기, 석기는 리소비츠크 취락이 이 문화에 속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취락에서 청동제품군과 가축형상의 토제품의 발견은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농기구, 저장용기, 동물뼈(대부분 소)의 조합은 가축사육을 한 정주농경형태를 증명한다.

출토품의 특징으로 판단하건데 리소비츠크 취락은 사바티노프 문화 전 시기에 걸쳐 존재하였고, 어찌면 기원전 16~13세기로 잠정적으로 편년할 수 있다. 타만

* 남부연방대학교, 로스토프 나도누
** 이지은 번역(동아대학교 연구교수)

반도에서 이 문화 유적의 발생은 이 문화의 주체가 흑해북안지역에서 크림반도를 거쳐 타만으로 이주해왔음을 증명한다.

주제어 : 타만반도, 청동기시대, 사바티노프 문화, 리소비츠크 취락, 청동기군, 가축형상 토제품, 정주농경형태, 흑해 북안, 크림반도

타만반도(타만)은 역사시대 동안 강줄기를 바꿔가며 아조프해와 흑해로 흘러들었던 쿠반강 삼각주 북서쪽에 있는 구릉지이다. 이 구릉은 넓은 골짜기로 나뉘어진 동-서로 뺏은 화산재층으로 이루어졌다. 이 골짜기 하층은 소금기가 말라붙은 하구의 해저층이거나 꽤 깊은 만(예를 들면, 타만灣, Taman Bay)이다. 타만해안은 남쪽에는 아조프해(Azov Sea), 동쪽에는 흑해(Black Sea)와 아조프해가 합해지는 케르치해협(Kerch Strait), 동북쪽에는 흑해연안으로 형성되어 있다(도 1).



도 1. 타만반도의 위치

타만반도의 이러한 위치와 경관은 과거 역사 전단계 동안 인간 거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타만지역에서는 국가나 제국 존재 시기동안 집중적으로 해상교역, 대외교류, 영토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 보스포러스 왕국과 고대 루시의 티무타라칸 (Tmutarakan) 공국의 수도, 비잔틴 제국과 하자르 칸국(Chasar)의 요충지, 터키제국과 크림 칸국(Crimean Khanate) 이 몇 백년 동안 위치하였다.

타만 땅은 이러한 반도 역사 장의 물질적 증거로 가득 차있다. 타만반도는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러시아 전통 고고학이 탄생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곳에 이미 약 250년 동안 고고발굴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대 그리스 관련이고, 드물게 중세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선사시대, 그 중 청동

¹⁾ Античное наследие Кубани...Стр. 23-128

기시대 유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되지도 않았다. 다만 타만 북서외곽에 위치한 파트레이(Patrey) 취락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물과 같이 역사시대 유적을 발굴할 때 우연히 발견될 뿐이다. 이 대부분은 문화층에서 나오는데 더 늦은 시기의 유적이 형성되면서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퇴장유적, 쿠르간(대형고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우연하게 수습되었고, 대부분은 더 늦은 시기 유적 조사시 발견된 바 있다. 바타레이카(Batareyka) 마을 후기 청동기시대 금속제 공구들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²⁾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청동기시대 자료는 리소비츠크 계곡 근처 마을에서부터 나온 청동기시대 자료는 대규모 공사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1990년대 두 개의 철도간선 공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2015~2016년도에 이 지역 지나는 철도본선이 연장되고, 타만반도와 크림반도를 잇는 해양대교의 축조방향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이 작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고고학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발굴된 면적은 90,000㎡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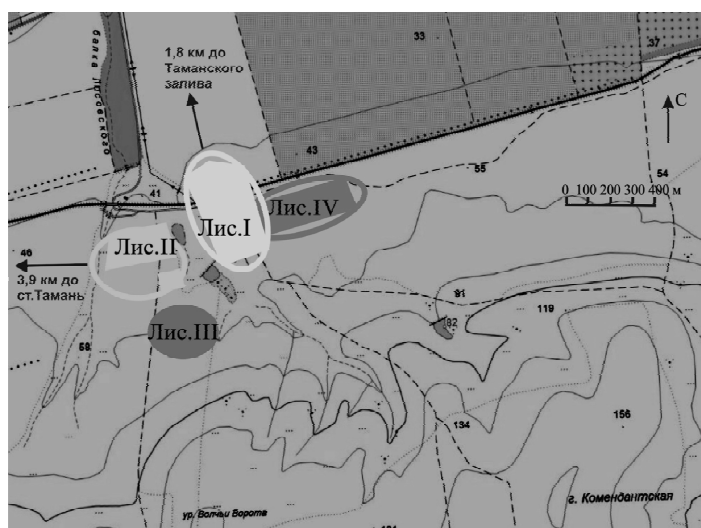
고대 유적은 코멘탄트스카야 산 북쪽사면에서 리소비츠크계곡 중턱을 따라 가는데, 크라스노다르주 템류크스크지역 타만마을에서 동쪽으로 3.9km 그리고 타만만에서 남쪽으로 1.8km 지점에 위치한다(도 2, 3).



도 2. 타만 리소비츠크 취락 위치

²⁾ Паромов Я.М., Гей А.Н. 2005. Стр. 333-334

과거에는 계곡 바닥을 따라 작은 강이 흘렀는데, 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조프해 케르치해협 타만만으로 합류하였다. 강의 길이는 짧은 편으로 강의 굴곡진 부분을 다 포함하여 5km정도이다. 문화적 잔재는 무리지어 나타나고 있으며, 코멘단트스카야 산 돌출부와 계곡 우측(리소비츠크 I, IV호 취락)과 보다 편평한 계곡 좌측(리소비츠크 II, III호 취락)에 층을 이루고 있다(도 3).



도 3. 리소비츠크 취락 분포

리소비츠크 I호 취락은 1992년 가을 쿠반대학교 고고발굴조사단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조사단장 마르첸코I.I.). 1993년 5~9월 림베리스 N.Yu.와 보치코프 V.V.의 지도 하에 조사단은 리소비츠크 I호 취락의 작은 한 구역을 조사하였다. 작업 중 저장공과 I - III 세기 축조물의 잔재를 발견하였다. 문화층에서 발견된 토기자료(암포르 파편, 식기류)는 대부분 중세 초기 (VIII - IX세기)로 편년된다.

2001~2002, 2004, 2006년 쉬쉴로바 A.V.를 단장으로 하는 노보로스스크 역사박물관 조사단은 유적 내 고대와 중세층이 꽤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4년과 2006년도 조사기간 동안 발견된 유물은 더 이른 시기 자료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취락 동북구역에서 순동기-청동기시대로 편년되는 마제지석, 자귀, 진주나 기하학적 문양을 가진 토기편, 골각기가 발견되어 해당시기 이 취락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하였다.

5~7층 수준의 유적 높은 부분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층이 확인되었다. 개별 수습품 가운데 수레형 토우, 의례용 «뺨», 석제편, 연석, 지석, 보트형 연석, 흑요석제 도구, 석핵이 있다. 이 시기 유일하게 석제품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가공되지 않은 석재가 확인되었다.³⁾

2009~2010년도 리소비츠크 I호 취락 구역에서 코노소바 V.Yu.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러시아 고고학센터의 구제발굴이 실시되었다. 두 시즌 동안 취락의 동쪽과 남동쪽은 575m² 면적이 노출되었고, 석제노면과 7개의 저장공이 조사되었다. 중세 초기와 고대문화층이 교란되었다. 이 시즌에서는 청동기시대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도 3월~5월 남부연방대학교 고고학자의 참여 속에서 구구예프 Yu.K. 를 단장으로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특수작업·감정센터는 리소비츠크 I호 취락의 대규모 구제발굴이 실시되었다. 총 30,250m² 면적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III-V세기에 해당하는 고대층과 VII-XI세기 말에 해당하는 중세층이 발견되었으나 현대 생활활동의 결과로 파괴되고 상당히 교란되었다.

취락 구역 조사에서 일부 분묘와 청동기시대 토기, 토기편, 흑요석제 유물이 발견되었다.

2016년도 조사기간 동안 리소비츠크 취락에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현장작업은 종료되었고, 55,890m²에서 발견된 유물의 정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소비츠크 I호 취락과 인접 유적인 리소비츠크 IV호 취락 발굴(단장 구구예프, Yu.K.)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라첸코 S.M.을 선두로 계곡의 좌안에 위치한 리소비츠크 II호 취락의 일정 구역이 조사되었다(도 3). 이 발굴 중 고대층과 고대 건축물, 중세 초기 자료(요지) 그리고 청동기시대 수습품이 발견되었다.

리소비츠크 I호 취락 2016년도 구역에서는 2015년도 발굴조사 구역보다 1930년대 협동농장 건설, 대조국전쟁 참호 구축, 1940년대 협동농장의 재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하여 더 넓은 구역의 파괴가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지난 발굴 기간동안 이 취락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세 초기, 특히 카자르왕국 시기와 연관되는 토층과 구조물(요지의 존재와 같은 것) 등의 문화적 잔재가 발견되었다. 고대 자료는 조사구역에서 적었다.

2016년 발굴기간에는 리소비츠크 IV호 취락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청동기시대 후기 사바티노프 문화에 해당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타만반도라는 이 유적

³⁾ Шишлов А.В., Колпакова А.В., Федоренко Н.В. 2008

의 위치 자체가 하나의 뉴스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부가(Buga)강, 드네스트르, 드네프르강 남쪽, 그리고 크림반도에 이 문화가 존재하였다. 전기했듯이 이 리소비츠크 취락 청동기시대 출토품은 잘 알려져 있고, 이에 관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 저자들은 «확보된 자료가 북부 흑해지역과 코카서스 북안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에 특징적이다»라는 전반적인 특징을 언급하는데 그쳤다.⁴⁾

2016년도 출토품은 유적의 편년과 문화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리소비츠크 I호 취락 남서쪽 발굴구역에서 청동제품이 밀집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동경 3점, 제작 실패작으로 보이는 동부편이다(도 4-2,4,5,6). 동경은 북코카서스(쿠반)계로, 비대칭 호선을 이루는 꽤 넓은 인부를 가지고, 짧은 심을 가지는데, 직선으로 인부에 기울어져 있다. 동경의 굽은 부분은 용범에 잘 나타난다. 동경의 등부분은 돌출띠와 같은 것으로 마무리된다(도 4,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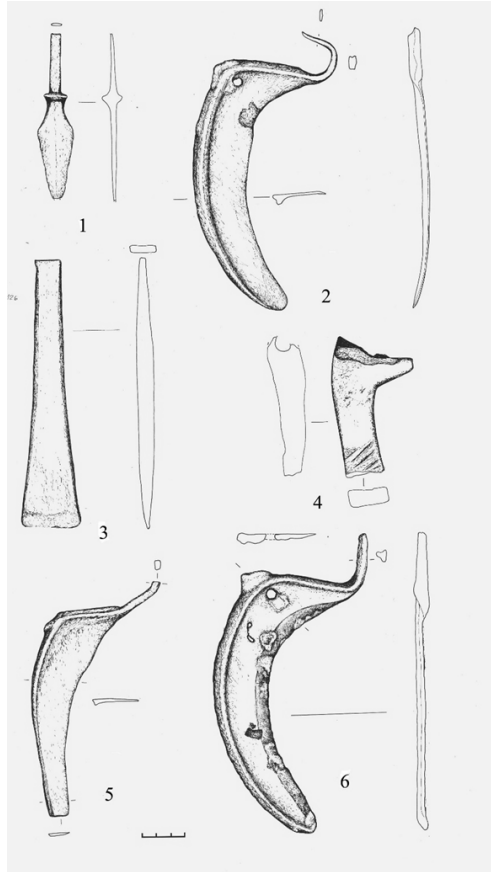
베르호니 쿠반강 상류, 그리고 더 동쪽에는 형태상 더 유사한 것 바무트(Bamut)형, 바무트(Bamut) I형 동경이 분포하고 있다. 리소비츠크 I호 취락 출토 동경은 이 형식의 보다 이른 단계의 것으로 보이고, (거리상으로나 형태상) 바타레이스키와 쿠르친스키 출토품(모두 타만반도 북부)에 더 가깝다.⁵⁾

동경과 함께 출토된 청동기편은 동부의 파손품으로 여겨진다. 동부의 공부와 인부로 가는 장방형 연결부분 편이다(도 4, 4). 이 출토품은 꽤 이른 시기 동경의 특징에 부합되므로, 리소비츠크 I호 취락에서 발견된 이 청동기 군집 전체를 기원전 2천년대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 군집의 문화편년적 소속은 리소비츠크 IV호 취락 자료인 사바틴스카야 문화의 이른 시기의 형식학적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취락은 전면조사 완료되었고, 조사 면적은 40,000m²에 이른다. 리소비츠크 계곡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위도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다(도 3). 보다 풍부한 자료는 계곡 동쪽 구릉지에 형성된 코멘탄스카야 산 지맥의 반대사면에 위치한다. 중세시기 구릉정상이나 서쪽 사면과 동쪽사면에 있었던 주민과 달리, 청동기 시대인은 동쪽사면, 그리고 구릉 아랫부분, 그리고 더 동쪽인 코멘탄스카야산 북부사면 아래 평지를 따라 살았다. 이 뿐만 아니라 타만반도의 특징적인 강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장소에 이 취락의 구역이 위치한다.

4) Шишлов А.В., Колпакова А.В., Федоренко Н.В., 2008

5) Паромов Я.М., Гей А.Н. 2005. Стр.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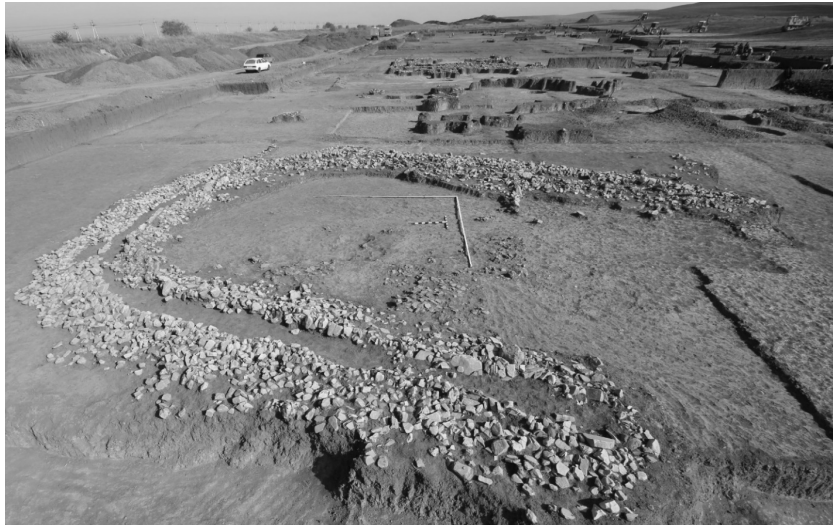


도 4. 리소비츠크 취락 IV. 출토품 (2,4-6) 수습품 (1,3): 1 - 청동소도; 2,5,6 - 동검;
3 - 동착; 4 - 동부편

유적을 남북으로 가르는 축은 강 지류(계절성 지류)로 코멘단스카야 산 북쪽에서 시작한다(리소비츠크 계곡 동쪽, 도 3). 더 북쪽인 타만만쪽으로 이 지류는 약하게 나타난다. 이 지류를 넘어 동쪽으로는 리소비츠크 IV호 취락이 있는데, 유물량은 비교적 적다.

취락에는 10개의 타원형, 원형의 포장구역이 발견되었는데, 덜 견고한(목재, 토제?) 벽의 기단부일 가능성이 크다. 가끔 이 포장구역은 그 사이의 작은 공간(0.5m)을 돌로 채운 이중 열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 포장구역은 대부분 서, 북, 동쪽에는 닫혀있고, 남쪽은 열려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축조시 자연기후적 요소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 틀림없다(도 5, 6). 이러한 포장구역과 관련되는 축조면적은 일부의 경우 300㎡ 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내부에 이러한

축조물은 덜 규칙적인 포장부분으로 가려져 있고, 이것은 벽으로 더 작은 방들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도 7, 8).



도 5. 리소비츠크 취락 IV. 축조물 3호. 서쪽에서 본 모습



도 6. 리소비츠크 취락 IV. 축조물 3호. 북쪽에서 본 모습



도 7. 리소비츠크 취락 IV. 축조물 3호. 동쪽에서 본 모습



도 8. 리소비츠크 취락 IV. 축조물 3호. 서쪽에서 본 모습

축조물 부근으로 저장공이 군집을 이루는데, 유적 내 다량의 가축뼈와 토기 등의 유물이 확인된 것은 수십 기에 이른다. 저장공 외부를 덮고 있는 문화층은 약하나, 동물뼈, 토기, 석기 등이 발견된다. 특징적인 대상으로 축조물 내 또는 인근에 약하게 불을 맞춘 공간과 기벽이 두텁고 넓고 큰 구연을 가진 대형토기

(Pithos) 무더기를 들 수 있다. 이런 무더기들은 축조물 근처나 내부, 점토구역 근처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석경에 해당되거나 특정 용도의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흑요석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일부 저장공에서 발견된 동물뼈의 사전분석을 통해 청동기시대 후기 균형 잡힌 가축 구성을 볼 수 있다. 가축뼈 70편 가운데 31편은 소, 25편은 말, 14편은 양이나 염소에 해당한다.

리소피츠크 IV호 취락 출토품 중 무엇보다도 토기는 이 유적이 청동기시대 후기의 사바티노프 문화에 속함을 증명한다. 이것은 단면이 심하게 꺾이지 않고 견부가 따로 없는 기벽이 얇고 거칠며 표면에 띠가 둘러지거나, 얇고 매끈하고 삼각형단면을 가진 옹형토기이다. 띠는 구연부 아래를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도 9, 1). 가끔 타원형 모티브의 띠, 심지어 방사선 형태의 작은 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원형 원으로 이루어진 태양-수레바퀴 구성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대형축조물 흔적인 주거지, 공방, 다양하고 독특한 토기, 많은 연석, 낫모양의 도구 등은 리소비츠크 IV호 취락에 주거하였던 이들의 생업에서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을 증명한다. 이에 주거지 인근에서 밀집 사육할 수 있는 가축으로써의 소의 존재는 모순되지 않는다.

전기하였던 유물 군집 외, 그로부터 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취락 문화층에서 발견된 청동제품이 특별한 관심을 끈다. 유적에서 다른 청동기인 소도(도 4, 1), 자귀(도 4, 3), 동검편(도 9, 7), 그리고 송곳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을 살펴본 보치카료프 V.S.의 전언에 따르면 «...자귀, 소도는 초기 사바티노프 문화에 해당하는 로보이코브스코-골로우로브스키 생산지의 특징적인 가공품에 속한다. 이 유물은 기원전 15~14세기로 편년되고, 리소비츠크 I호 취락의 청동기 군집과 동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견된 환두를 가지는 편(도 9, 5), 솔로네츠크 형식의 팬던트(도 9, 6)는 유적이 기원전 13~12세기에 해당하는 보다 긴 기간 존재하였음을 지적해준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에르미타주 실험실에서 행해진 군집된 곳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살펴본 취락의 토층에서 출토된 개별 청동기의 금속성분분석은 청동기군에서 출토품은 프리쿠반 생산지 가공으로 분류됨을 보여주었다. 청동검과 청동부편의 금속에는 상당량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 코카서스 계통이다. 토층에서 발견된 유물(자귀, 동검, 동검, 환두 편, 솔로네츠크 형식의 팬던트)에는 주석이 함유되어 카르파트 계통의 제품이다(도 4, 1,3; 9, 5-7).



도 9. 리소비츠크 IV 취락. 문화층 발견품: 1 - 토기편; 2,3,4 - 소, 개(?), 말형상 토우гатуэтки быка, собаки (?), лошади; 5 - булавка; 6 - фрагмент подвески; 7 - фрагмент (крюк) серпа; 8 - фрагмент топора (1-4 - глина; 5-7 - бронза; 8 - к

이 관찰은 사바티노프 전통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리킨다. 즉, 우크라이나 스텝지구에서 크림반도를 거쳐 케르치 해협을 건너서 타만반도로 왔다. 그곳으로부터 생활용 청동제품이나 제조원료를 가지고 왔다. 청동군집에서 나온 제품은 코카서스 원류를 가지고 있는데, 제작 실패품이나 사용흔을 가지는 것인데, 이는 2차 가공을 통해 재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견된 청동군집은 그 성분이나 상태로 보아 과거 바타레이카 마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며 '원료가 되는 군집'으로 불렸다.

다른 출토품은 다량의 석제 구(환?), 석부 반쪽(도 9, 8) (돌출부와 이부), 흑요석제 낫, 석제 연석으로 나뉘어진다. 골제품 가운데서는 말뼈로 만들어진 말형상이 있는데, 고정용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다. 흔치 않은 출토품으로 토우가 있다.

말의 상체, 개(?)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도. 9, 2,3,4). 비슷한 스타일의 것으로 아조프해 연안 노보키예브카 취락 18번 저장공에서 발견된 말의 하체와 다리만 남은 토우편이 있다.⁶⁾ 더 유사한 것으로는 크림분도 키로프 취락에서 발견된 말과 곰(?) 형상이다.⁷⁾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했지만 취락에서는 많은 양의 동물뼈가 발견되었는데, 유적 전체 조사시 취락 거주자들의 생업과 생활시스템에 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렇듯, 리소비츠크 취락의 발굴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중세 고고학에 큰 공헌을 하였다. 후기청동기시대 사바티노프 취락인 리소비츠크 IV호(15~12세기)의 발견과 연구는 최근 2~3년 간 타만반도에서 발굴된 취락유적이 되었고, 실제로 타만반도의 청동기시대 대규모 조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투고일 2017년 1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28일 ■

⁶⁾ Gerškovič J.P. 1999. Taf. 36, 13

⁷⁾ Лесков А.М., 1970, Стр. 29, Рис. 22, 5,6

참고문헌

- Античное наследие Кубани: В 3 т. М. 2010. Т.1.
- Дергачев В.А., Бочкарев В.С. Металлические серпы поздней бронзы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Кишинев, 2002.
- Лесков А.М. Кировское поселение // Древности Восточного Крыма (предскифский период и скифы). Киев. 1970
- Паромов Я.М., Гей А.Н. Памятники эпохи камня и бронзы на Таман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раткий обзор) // Древности Боспора. Вып. 8. М., 2005.
- Шишлов А.В., Колпакова А.В., Федоренко Н.В. Поселение у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 новый памятник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на Тамани // Отражение цивилиз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ах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Юбилейные XXV «Крупновские чтения» по археологи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Тезисы докладов. Владикавказ. 2008
- Gerškovič J.P. 1999. Studien zur spätbronzeitlichen Sabatinovka- Kultur am unteren Dnepr und an der Westküste des Azovschen Meeres. Archäologie in Eurasien, B.7. Berlin.

Abstract

Study on the Settlement in the Taman Peninsula of the Bronze Age

А.В. Кляшкo

The Taman Peninsula (Taman) is located between two seas: the Sea of Azov and the Black Sea and it is extended towards the Crimean peninsula which is separated from the Kerch Strait. Due to this geographical position Taman has always been at the crossroads of trade routes and at the junction of ancient cultures and civilizations. There are some archeological sites of different periods in this area. The most ancient of them refer to the Paleolithic Age. But the constant and mass colonization of Taman has been fixed since the Bronze Age.

Before the archeological excavations of 2015–2016, associated with the large-scal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highways on the Taman peninsula, there had been only initial and prospecting data about most of the sites of the past. But excavations which were held in this period actually opened the Bronze Age of the Taman Peninsula.

In this article it is going to be said about fully discovered settlement of the Bronze Age called Balka of Lisovitskogo which has the total square about 40000 m². There were found two rows of dwellings elongated in the latitudinal direction on this site, where the stone bases remained. Inside of building complexes it is possible to allocate the area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purposes and there are economic pits are suited near them. Large ceramic containers for storage of supplies, a variety of dining pottery decorated with the relief ornament were revealed there. It corresponds to the traditions of sabatinovskoy culture, which main sites are known in the northern Black Sea coast and the Crimea.

The other found things made of clay, bone, bronze and stone support this cultural definition of settlement of Balka of Lisovitskogo. This site is also interesting because of found hoard of bronze items and a few clay figurines of animals. Finds of tools related to agriculture, tanks for storage of supplies combined with the collection of animal bones with a predominance of cattle indicates the settled agricultural way in the conjunction with the house cattle breeding.

The settlement of Balka of Lisovitskogo, according to the treats of findings, had been existed during all period of sabatinovskoy culture and can be provisionally dated 16-13 centuries, BC. . The appearance of the sites of this culture on the Taman Peninsula is a discovery and shows the migration of carriers of this culture on the Taman from the Northern Black Sea region through the Crimean peninsula.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селения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на Таман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В. Кияшко*

Таман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Тамань)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возвышенность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окраине дельты реки Кубань, котора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ериода меняет свое русло и попеременно впадает то в Черное, то в Азовское море. Эта возвышенность образована рядами грязевых вулканов, вытянутых с востока на запад и разделенных широкими долинами. Нижние ярусы этих долин либо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морские полу высохшие соленые лиманы, либо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глубоководные морские заливы (например, Таманский залив). Побережья Тамани образуют южный берег Азовского моря, восточный берег Керченского пролива, соединяющего Черное и Азовские моря,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участок берега Черного моря (рис. 1).

Так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и рельеф Таман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заселению его на всех этапах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ошлого. Особенно интенсивно осваивалась Тамань в периоды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 и импери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торговлю, по преимуществу морскую, на внешние связи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экспансию. Здесь существовали столичные регионы Боспорского царства и Тьмутараканского княжества Древней Руси, важные центры Визант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Хазарского каганата, Турецкой империи и Крымского ханства.

Таманская земля наполнена материальными остатками этих страниц истории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Тамани, как и в Крыму, фактически зародилась рус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Античное наследие

* ЮФУ, г. Ростов-на-Дону

Кубани...Стр. 23-128).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раскопки проводятся здесь уже около 250 лет, но до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это были исследован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античных и, лишь изредка, средневековых древностей. Памятники первобытного периода, в частности,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не выявлялись и не раскапывались. Лишь случайно, при раскопках памятников историче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пример, городища Патрей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оконечности Тамани попадались находки эпохи бронзы. Они происходили из культурных слоев, практически уничтоженных в более поздние периоды. То же само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о других артефактах: кладах, курганных погребениях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Их единичные находки на Тамани были сделаны случайно, чаще всего при исследовании более поздних древностей. Например, клад металлических орудий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у поселка Батарейка был найден в процесс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втострады (Паромов Я.М., Гей А.Н. 2005. Стр. 333-334).

Материалы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с поселения у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о которых пойдет речь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также были получены в ходе обшир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Так случилось, что этот памятник оказался, начиная с 90-х годов XX века, в зон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ву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еток. В 2015-2016 гг.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памятника были проложены еще одна двухпутна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магистраль и скоростная автострад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 строящемуся мосту, соединяющему Таманский и Крымский полуострова. В связи с этими работами археологи провели на поселении масштабны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Общая раскопанная площад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ставила свыше 90000 м².

Древний памятник располагался у северных склонов горы Командантская, вдоль берегов средней части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в 3,9 км на восток от восточной окраины станицы Тамань Темрюкского района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и в 1,8 км к югу от Таманского залива (Рис. 2, 3).

По дну балки в прошлом протекала небольшая речка, начинавшаяся в нагорной части и впадавшей в Таманский залив Керченского пролива Азовского моря.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реки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с учетом изгибов русла всего около 5 км. Культурные остат

ки группировались и частично наслаивались друг на друга на участке отрога горы Комендантской, на правом берегу балки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и IV) и на более плоском левом берегу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I и III) (Рис. 3).

Поселение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было впервые выявлено осенью 1992 г. сотрудникам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ей Куб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чальник И.И. Марченко). В мае-сентябре 1993 г. отряд экспедиц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Ю. Лимберис и В.В. Бочкового провёл раскопки небольшого участка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В ходе работ были выявлены хозяйственные ямы и остатки построек античной эпохи (I – III вв. н.э.). Керам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из культурных слоёв (фрагменты амфор, кухонной и столовой посуды) относился, в основном, к эпохе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VIII – IX вв.).

В 2001–2002, 2004 и 2006 гг. отряд Новороссийск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В. Шишлова проводил охранно-спасательные раскопки ряда участков поселени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ыло исследовано 3550 м² площади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Эти обширные работы подтвердили наличие на памятнике значительных напластований античности и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Ещё одним открытием стали находки в сезоны 2004 и 2006 годов материалов более раннего времен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поселения были найдены относящиеся к эпохе неолита-бронзы зернотёрка, тёрочки, тесло, фрагменты керамики с жемчужным и геометрическим орнаментом, орудия из ко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е о наличии жизни на поселении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в возвышенной части памятника на уровне 5-7 пластов залегал слой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Из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находок отметим керамические модели колес, лепные культовые «хлебцы», каменные оруди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отбойники, тёрочки, ладьевидные зернотёрки, кремнёвые орудия и нуклеусы. Зафиксирован и единственный объект этого периода – скопление каменных орудий и необработанного камня (Шишлов А.В., Колпакова А.В., Федоренко Н.В. 2008).

В 2009–2010 гг. охранно-спас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 участке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проводила экспедиция южно-российского Центр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Ю. Кононова. За два сезона в В и ЮВ частях поселения была вскрыта площадь 575 м², исследованы каменная вымостка и 7 хозяйственных ям.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е и античные культурные напластования были перемешаны. Находок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в эти сезоны работ встречено не было.

С марта по август 2015 г.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ий центр специальных работ и экспертиз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ри участии археологов ЮФ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Ю.К. Гугуева вновь приступил к масштабным спасательны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На поселении был заложен раскоп общей площадью 30250 м², выявивший слои античной (III в. до н.э. – V в. н.э.) и средневековой (VII – конец XI в.) эпох, повреждённые совреме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перемешанные.

На исследованном участке поселения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также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омплексы (погребения) и предметы (сосуды, их фрагменты, кремнёвые изделия)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В сезон 2016 года обши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комплексе поселений у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были продолжен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левой этап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ён, в обработке находится материал с 55890 м². Производились раскопки на поселении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а также на смежном с ним поселении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V (руководитель – Ю.К. Гугуев).

Кроме того, во главе с С.М. Ильяшенко, исследованы значи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I на левом берегу балки (Рис. 3). В ходе этих раскопок выявлены слои и постройки античного времени, материалы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том числе гончарная печь) и отдельные находки эпохи бронзы.

Участок работ 2016 года на поселении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оказался ещё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ем площадка раскопа 2015-го года, разрушен разного рода земляными работами: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фермы в период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30-х годов

XX века, при сооружении окопов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чередны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фермы в 40-5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Обнаруженные здесь культурные остатки подтвердили и характер этого поселения, выявленный в прошлые сезоны – преобладание напластований и построек (в том числе, опять-таки наличие гончарных печей), связанных с ранним средневековьем,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 периодом Хазарского каганата. Материалы античного времени на изученном участке малочисленны.

Одним из открытий сезона 2016 года стало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V, которое по ряду признаков может быть уверенно отнесено к сабастиновской культуре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Само по себе новостью стало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этого памятника на Таман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ежде поселения этой культуры были извест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в низовьях рек Южного Буга, Днестра и Днепра, а также в Крыму.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на дан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селений у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находки эпохи бронзы уже были известны и даже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этой работе авторы ограничились замечанием общего характера, что «получ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характерны для культур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Северного Причерноморья 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Шишлов А.В., Колпакова А.В., Федоренко Н.В., 2008).

Находки 2016 года позволили более точно определить культурн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и датировку памятника. На ЮЗ краю раскопа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 самой балки, был обнаружен клад бронзовых изделий: три серпа и обломок топора, представлявший собой фрагмент бракованного (?) изделия (рис. 4, 2,4,5,6). Серпы относятся к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й (кубанской) серии, имеют ассиметричную дуговидно-коленчатую форму достаточно широкого лезвия, с коротким стержнем – прямым, отогнутым к спинке или к лезвийной части изделия. На коленчатых перегибах серпов заметны остатки литников. Спинка серпов укреплена валикообразным расширением (рис. 4, 2,5,6).

По форме они наиболее схож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на Верхней Кубани и далее на восток серпами типа Бамут, вариант Бамут 1 (Дергачев В.А., Бочкарев В.С., 2002, С. 166-170). Серпы из клада

у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представляют раннюю стадию развития данного типа, близки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и по морфологии) к отдельным серпам из клада у Батарейки, серпу из клада у Курчанского (все – северная часть Таман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аромов Я.М., Гей А. Н. 2005. Стр. 333).

Обломок бронзового изделия, найденный вместе с серпами,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бракованную заготовку вислюбообразного топора: фрагмент втулки и брусковидного, прямоугольного в сечении перехода к лезвийной части (Рис. 4, 4). Эта находк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остаточно раннему облику серпов, что позволяет датировать весь клад, найденный на поселении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серединой II тыс. до н.э.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гическ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лада, определяется, помимо типологических признаков предметов, материалам самого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V – сабатин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ее ранний этап.

Названное поселение исследован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его площадь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40 тыс. м². Располагалось оно к востоку от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и было вытянуто в широ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ис. 3). Наиболее насыщенный постройками и находками участок памятника находился с тыльной стороны отрога горы Комендантской, образующего на восточном берегу балки возвышение. В отличие от населения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заселявших вершину этого холма и его западные и северные скаты, люди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жили с востока, у подножья холма и далее на восток – вдоль относительно ровного и плоского участка северного склона горы Комендантской.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участок поселения находился в месте, относительно защищенном от ветров, характерных для Таман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сью, разделяющей памятник по линии С – Ю является ручей (сезонный водоток), берущий начало в безымянной балке на северном склоне горы Комендантской (восточнее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 см. Рис. 3). Далее к северу, к Таманскому заливу этот ручей представлен слабо выраженным в рельефе руслом. За этим ручьем к востоку находился менее насыщенный находками участок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V.

На поселении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10 каменных вымосток преимущесвенно овальной и круглой формы, представлявших собой,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основания менее прочных (деревянных, глиняных?) стен. Иногда эти вымостки образовывали двойные ряды каменных набросок с небольшим (до 0,5 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между ними. Контур этих вымосток в наиболее характерных случаях был замкнут с запада, севера и востока, но разомкнут с южной стороны, что очевидно было связано с учетом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фактора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Рис. 5,6). Площадь построек, связанных с этими вымостками, в ряде случаев достигала значительных размеров – до 300 м².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внутри эти постройки были разгорожены менее регулярными вымостками, а значит и стенами, на более мелкие помещения (Рис. 7,8).

Вокруг построек группировались хозяйственные ямы, количество которых на памятнике насчитывает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содержащих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стей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керамику и другие предметы. Вне ям насыщенность культурного слоя слабая,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стречаются кости животных, керамика, каменные орудия и т.д. К числу характерных объектов следует отнести глиняные слабообожженные площадки внутри построек и рядом с ними, а также развалы крупных толстостенных сосудов с массивными венчиками – пифосов. Эти развалы также располагались возле построек и внутри них, нередко возле глиняных площадок. Были найдены характерные кремневые изделия, служившие вкладышами для орудий типа серпов или бывших автономными серпам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остеолог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в частности из од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ямы, дал характерный для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й состав стада. Из 70 фрагментов костей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31 принадлежала крупному рогатому скоту, 25 – лошади, 14 – мелкому рогатому скоту.

Находки на поселении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V, прежде всего керамика, убедительно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ег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сабатиновской культуры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Эт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плавнопрофилированный и бесшейные баночные тонкостенные сосуды с подлощенной поверхностью, украшенные валиками: тонким

и, гладкими, подтреугольными в сечении либо расчлененные на колпачки или пальцевыми зажимами. Валик, чаще всего, образует пояс под венчиком (Рис. 9, 1). Иногда встречаются валиковые овальные мотивы и даже солярно-колесовидные композиции из двух вписанных друг в друга кругов, соединенных радиальными отрезками.

В целом, находки остатков крупных стационарных построек: жилищ и,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хозяйственных сооружений, разнообразно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керамик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зернотерок и серповидных орудий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важной роли земледелия в хозяйстве обитателей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V. Этому не противоречит комплексный, придомный характер скотоводства с преобладанием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Чрезвычайно интересны находки бронзовых изделий в культурном слое поселения, помимо уже описанного клада предметов, найденного примерно в 300 м к западу от его границы. На памятнике обнаружены другие бронзовые предметы: нож (рис.4, 1), тесло (рис.4, 3), обломок (крюк) от серпа (рис. 9, 7), а также шило с перехватом. По устному определению В.С. Бочкарева, ознакомленного с этими вещами: «...тесло и нож, относятся к типичным изделиям лобойковско-голоуровского очага, который относится к раннесабатиновской культуре. Они датируются в пределах 15-14 вв. до н.э. и фактически синхронны кладу бронз с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 В то же время, найденная здесь булава с кольцевидным навершием (Рис. 9, 5), и, особенно, фрагмента подвески солонецкого типа (Рис. 9, 6) указывают на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бытования памятника, т.к. датируются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13-12 вв. до н.э.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оизведенный в лабора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рмитажа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еталлографический анализ бронзовых изделий клада и отдельных находок из слоя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го поселения показал, что предметы клада относятся к прикубанскому очагу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и. Металл серпов и обломка топора содержит значительные добавки мышьяка, т.е. он кавказ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редметы из слоя (тесло, нож, крюк от серпа, булава с кольцевидным навершием, фрагмент подвески солонецкого типа) – содержат добавки олова и являются изделиями карпатского прои-

схождения (Рис. 4, 1,3; 9, 5-7).

Это наблюдение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направление откуда проникли и носители сабастиновских традиций на Таман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 территория степной Украины, по Крым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и через Керченский пролив. Оттуда они принесли сами бытовые бронзовые предметы или сырье для их изготовления. А изделия из клада, кавказ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меющие к тому же следы интенс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брака,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вторично, путем переплав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йденный клад по составу и состоянию предметов был так называемым сырьевым кладом, аналогично найденному ранее у поселка Батарея.

Среди других находок выделяют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аменные шары (снаряды пращи?), половинка каменного топора (Рис. 9, 8) (фрагмент втулки и обушковой части), кремневый серпы, каменные терочки. Из костяных изделий обращаю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кошки»-лощила из костей лошади с отверстиями для крепления, тупики, проколки. Редкой находкой являются глиняные статуэтки: фрагмент верхней части туловища лошади, фигурка собаки (?) и быка (Рис. 9, 2,3,4). Стилистически близкая статуэтка, только обломок нижней части туловища и ног лошади (?), обнаружена в яме 18 на поселении Новокиевка в Приазовье (Gerškovič J.P. 1999. Taf. 36, 13). Еще более близкой аналогией являются статуэтки лошади и медведя (?) из материалов Киров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в Крыму (Лесков А.М., 1970, Стр. 29, Рис. 22, 5,6).

Кроме того,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на поселении встреч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стей животных, что, с учетом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й изученности памятника, может дать хорош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хозяйстве и системе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обитателей посел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скопки комплекса поселений у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представляю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археологию эпохи бронзы,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Открытие и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зднебронзового сабастинов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Балка Лисовицкого IV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15-12 вв. до н.э.), которое становится в ряд раскопанных в последние два-три года поселен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на Тамани, фактически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начало масштабного изучения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Таман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ЛИТЕРАТУРА

- Античное наследие Кубани: В 3 т. М. 2010. Т.1.
Дергачев В.А., Бочкарев В.С. Металлические серпы поздней бронзы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Кишинев, 2002.
Лесков А.М. Кировское поселение // Древности Восточного Крыма (предскифский период и скифы). Киев. 1970
Паромов Я.М., Гей А.Н. Памятники эпохи камня и бронзы на Таман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раткий обзор) // Древности Боспора. В ып. 8. М., 2005.
Шишлов А.В., Колпакова А.В., Федоренко Н.В. Поселение у балки Лисовицкого – новый памятник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на Тамани // Отражение цивилиз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ах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Юбилейные XXV «Крупновские чтения» по археологи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Тезисы докладов. Владикавказ. 2008
Gerškovič J.P. 1999. Studien zur spätbronzeitlichen Sabatinovka-Kultur am unteren Dnepr und an der Westküste des Azovschen Meeres. Archäologie in Eurasien, B.7. Berlin.

Пояснения.

Первые два рисунка – 1 и 2 даны в виде спутниковой фотографии и в варианте картографии. Можно будет выбрать оптимальный вариант для издания.

Другие иллюстрации даны в разных цифровых форматах для удобства их переработки для издания. Формат цифр на рисунке 4 и 9 не сделан одинаково – не успел.